

우리나라 沐浴의 풍속사적 研究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조효순

目 次	
I. 序 論	3) 목욕 방법
II. 本 論	4) 목욕 예의
1) 역사적 개관	III. 結 論
2) 목욕 용구	

I. 序 論

목욕은 복식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몸치장 중의 하나이다. 목욕으로써 몸을 청결히 하고 피부를 윤기있게 만든 다음, 화장을 하고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복식생활의 중요한 기초로 간주 되었고, 조선시대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조선조는 사치한 복식문화의 영향으로 귀족을 중심으로 한 미용수단으로써 목욕이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

조선조의 목욕풍속이 집안 은밀한 곳에서 부분욕 중심으로 행해진 관계로, 간혹 당시의 목욕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의 목욕풍속을 최하층 서민 중심으로만 본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목욕풍속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욕에 사용하였던 목욕도구, 목욕방법, 목욕예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야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목욕의 풍속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어서 목욕용구 목욕의 방법,

예의 등의 순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역사적 개관

목욕의 역사를 개괄해 보기에 앞서 목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고대 인들은 물을 대단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그 증거로는 건국 시조의 탄생설화가 흔히 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보면 東夫餘의 시조 金蛙王은 커다란 연못이라 일컬어지는 鯤淵¹⁾에서 탄생했다.²⁾ 또한 고구려의 시조 朱蒙은 柳花와 解慕漱의 압록강에서의 인연이 이루어낸 결실이다.³⁾ 그밖에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楊山에 있는 蘿井⁴⁾이란 우물가에서 탄생하여 東泉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비로소 광채를 발할 수 있었다.⁵⁾

이것은 물을 신성시하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에대한 이러한 관념은 굽기야 일종의 신앙으로

1) 一說에 '鯤淵'은 큰 못을 말함이나, 白頭山의 天池라 한다.

2)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東扶餘條, 參照.

3)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高句麗條, 參照.

4) '蘿井'이란 담장이 덩쿨로 덮힌 우물로서 慶州 楊山에 있다고 함.

5)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新羅始祖, 赫居世王條, 參照.

돌변해 일상생활 깊숙히 뿌리를 내렸으니 ‘샘[泉] 곳’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샘곳은 農耕儀禮로서 歲時에 따라 歌舞하는 곳과 함께 반드시 행해졌다. 또한 埋鬼곳을 할 때도 그 집에 샘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샘곳을 했다고 한다.⁶⁾

신성 관념에서 비롯된 물에 대한 이러한 토속 신앙은 특별한 의례행사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행해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젓줄인 동네샘을 그 마을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지키게 했고 또 정돈 시킴으로써 샘물에 대한 신빙성 내지 신앙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이다.

그런데 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비단 우리 민족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것이었다. 곧 기독교에서는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그리스도로 부터 세례를 받은 이래 세례는 신자가 되는 儀式으로 되어 왔으며, 힌두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물로서 죄를 면해주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

물에 대한 선조들의 이상과 같은 신성관념을 생각하면서 목욕의 역사를 살펴본다.

古代에 있어서 목욕이란 오늘날 생각 하듯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주술 수단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림곳[神곳]이나 고사를 지냄에 있어서 정갈한 몸으로 신을 맞기 위해 목욕을 했던 것이다. 주술적 의미 충족의 수단이었던 목욕은 삼국시대로 오면서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크게 성행되기에 이르렀다.

불교에서 뜻하는 목욕의 의미는 「釋氏要覽」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으니 첫째가 몸을 씻는 것이요, 둘째가 말[語]을 씻는 것이며, 셋째가 마음을 씻는 것이다.⁷⁾ 목욕의 의미는 이밖에도 「佛說温室洗浴家僧經」에 목욕을 하면 7가지 병이 다 제거되고 7가지 福을 가져온다고 한 바,⁸⁾ 이는 오늘날의 목욕의 미인 건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몸을 씻음으로써 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목욕의 의미가

당시의 목욕풍속을 생활화 시킬 수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목욕의 방법은 어떻게 발달 했을까? 목욕 풍속이 불교의 沐浴齋戒에서 크게 발달한 만큼 앞서 이용한 佛經에서 그 기록을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釋氏要覽」에서 “몸을 깨끗이 하는데는 오른손으로 병을 잡고, 왼손으로 씻는다. 밖으로 나아가서 우선 재를 손으로 비벼서 바르고 물로 씻어낸다. 또 황토를 사용해 세번씩 닦고 민물로 씻어 낸다. 그리고 밀가루를 사용해 몸을 씻으며 팔굽까지 다 씻는다. 손을 씻을 때는 재, 황토, 밀가루 등을 사용한다.”⁹⁾고 했다. 그리고 「佛說温室洗浴家僧經」에는 목욕에 물건으로 燃火, 淨水, 澡豆, 蘇膏 : 몸에 바르는 기름, 淳灰 : 때를 빼는 물건, 楊枝 : 칫솔, 內衣 등 7가지를 들고 있다.¹⁰⁾

이상의 두 기록대로 일반인들이 다 갖춘 목욕을 했으리라고는 물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에는 그 근본방법은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에 보편화 된 목욕의 풍속은 백제왕이 불상과 경전을 일본에 보내 불교를 전파함에 따라 그곳의 목욕풍속 또한 대중화 시키기에 이르른다.¹¹⁾

삼국시대에 널리 풍속을 이루었던 목욕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어 갔으며, 「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곧 「孝昭王代竹旨郎條」에 益宣阿干이 죄를 짓고 도망가자 그의 맏아들을 대신 잡아다 성안의 연못에서 목욕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죄를 면케했다는 내용이다.¹²⁾ 이것은 목욕을 免罪의 방법으로 삼은 보기로 물을 신성시 하며 부끄러움을 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통일신라에서는 돌을 쌓아올려 뜨겁게 닦은 뒤 거기다 물을 부었을 때 나오는 증기로 몸을 씻는 증기욕이 발달되어 이 풍속이 일본에 전파될 정도

6) 윤병화, 꺾여진 맛·멋·흥, 합동기획, 1982, 9. 210 參照.

7) 釋氏要覽, 洗淨條, 參照.

8) 佛說温室洗浴衆僧經, 四分律經條, 參照.

9) 釋氏要覽, 洗淨條, 參照.

10) 佛說温室洗浴家僧經, 四分律經條, 參照.

11) 落合茂, 洗う風俗史, 未來社, 1984, p. 20 參照.

12)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參照.

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목욕풍속을 기록한 「先う風俗史」에, 일본의 한중탕이 서민들의 공동탕으로 지방에 까지 널리 퍼진 것은 平安時代 말기(통일신라에 해당)인데, 이는 “조선의 한증이 수입되어 瀬戸内海沿岸과 人瀬의 한중탕을 갖게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라고 했다.¹³⁾ 이러한 증기록에 이르기까지 무르익어 있었던 통일신라의 목욕풍속은 고려시대에 와서 한층 일반화 되어 서민들의 생활 깊숙히 뿌리를 내렸다. 당시의 목욕풍속을 宋의 徐兢은 「宣和奉使高麗國經」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날마다 두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에서 많이 한다. 남·녀 구별없이 의관을 언덕에 벗어놓고 물구비 따라 몸을 벌거 벗으면서도 괴이쩍게 여기지 않는다.”¹⁴⁾

또한 「宋史」와 「鷄林類事」에도 고려 사람들은 여름에 남·여가 함께 냇가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⁵⁾ 고려 사람들은 이처럼 냇가에서 수시로 목욕을 하였을 뿐 아니라 藥湯이라 하여 여러가지 약재를 넣은 물에 목욕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약재는 대개 黃牛酥, 香蒜, 蛇皮, 日芥子, 描兒糞酥, 安息香, 牛黃, 鷄翅牛角, 人骨 등이 었으며 이 약탕은 대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2세에 이르기 까지 소아과학으로 권장되기도 했다.¹⁶⁾

한편 문헌에 따르면 고려에서는 온천의 치료 효과는 일찌기 깨닫고 있었던듯, 역대 왕들이 温泉에 행차 했다는 기록과 함께 당시의 귀족들이 온천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곧 「고려사절요」

에는 文宗왕의 신유년(1087) “10월 갑자기 平州温泉에 행차했다가 계유일에 돌아왔다”¹⁷⁾는 기록을 비롯하여 출렬왕이 병술년(1286) “을유일에 평주온천에 행차했다가 12월 갑오일에 돌아왔다는”¹⁸⁾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사」에는 “穆宗이 병이 난 韓彥恭에게 온천에 가서 목욕할 것을 권장했다”는¹⁹⁾ 기록이 있으며, 당시의 문장가 李奎報는 그의 저서 「東國李相國集」에서 “朴公과 함께 東萊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한다”²⁰⁾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밖에 고려에서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복숭아꽃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복숭아의 붉은 꽃과 거기에 맺힌 이슬이 어린아이의 얼굴에 광택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¹⁾ 결국 呪術수단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목욕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건강수단인 동시에 의료 행위였고 미용수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오늘날 대표하고 있는 목욕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완벽한 목욕문화를 형성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만개했던 고려의 목욕문화는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 표면상으로는 퇴조의 기미를 보였다. 그것은 종교와 관련한 것으로 삼국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던 불교가 沐浴齋戒를 율법으로 정하고 있었던 반면, 조선조의 유교는 옷을 벗는다는 것이 非禮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조에서 옷을 모두 벗고 전신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건강상 미용상 목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주 부분 목욕을 함으로써 몸을 정갈하게 했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목욕풍속이 이와 같이 全身

13) 落合茂, 洗う風俗史, 1984, pp. 25~26.

14) 徐兢, 宣和奉使高麗國經, 卷二十三, 雜俗

15) 宋史 卷487, 列傳 246, 外國三, 高麗條, 鷄林類事, 說部所載

16) 全完吉, 맛 5000年, 教文社, 1980, p. 232.

17) 高麗史節要 第五卷, 文宗 35年 신유條 國역 I, p. 314.

18) 高麗史節要 第二十一卷, 忠烈王 12년 병술條 國역 IV, p. 154.

19) 高麗史 卷93, 列傳卷六

2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十二, 古律詩

21) 崔滋, 補閑集 卷上, 參照.

兒生用桃花洗面, 呪, 日取經花取白雪與兒洗面, 作光潔

욕에서 部分浴을 주로하는 풍속으로 변해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여러 형태로 합리화 시킨 전신욕이 얼마든지 있었고 목욕에 부여된 의미 또한 고려시대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치료수단, 미용수단으로서의 목욕은 고려시대 보다 한층 발전하여 상류층에서는 溫泉浴 冷泉浴 한증욕, 香湯, 藥湯 등이 크게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2) 목욕용구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목욕 용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야이다. 대야는 얼굴, 손, 발 등 부분욕을 할 때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 형태는 대체로 둥글넓적하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형태일 뿐 조선시대의 대야는 용도에 따라 性別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었다. 조선조 말의 생존자 이규숙은 당시의 대야 풍속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야두 다 각각이여, 모양이 시숫대야는 전대야여 저전(물건의 위쪽 가장자리의 약간 넓적한 부분) 달리짚우, 늦대야는, 함지박만 허구 가장이에 전이 달렸어, 불드는게 달렸어. 발씻구 뒷물 하는 대야는 움팡 대야여, 오목하게 바리처럼 생겼어, 손씻는 대야는 그것보다 작게 해서 또 모양이 달르게, 대야가 다 모양이 달르게 생겼다구, 남자 시숫대야 또 다루구, 시어머니 것, 시아버지 것 다루구, 또 하인들 씻는 것 다 따로 있구, 내거 내 빙에 마루에 있구.”²²⁾

여기서 조선조 대야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당시의 대야는 대개 재료에 따라 구리로 만든 구리대야[銅盆], 흙으로 만든 사기대야[瓷盆], 나무로 만든 나무대야[木盆], 유황을 넣어 만든 유황대야[硫黃匣]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의 특징을 보면 구리대야는 그 모양이 국사발 같이 생겼으며 자루가 달려 있어 물붓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야는 구리와 아연을 혼합해서 만든 늦대야가 나오기 이전까지 가장 널리 쓰였

던 목욕도구의 하나이다. 특히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구리대야만은 구비해 놓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는데 그 이유는 “매일같이 나무로 만든 대야에 얼굴을 씻으면 철분이 몸에 스며들어 해롭기 때문”²³⁾이었다.

사기대야는 당시 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도로에서 구워냈는데, 표면에 회청색을 칠한 뒤 두마리의 잉어가 뛰노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상례였다.²⁴⁾ 이 대야는 많은 정성을 요하는 만큼 불품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구리나 나무로 만든 대야와 달리 깨지기 쉬울 뿐 아니라 무겁고 비싸 비실용적이라는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사치를 숭상하는 상류층에서만 유행했을 뿐, 일반 서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기대야는 당시 중국에서는 유행하고 있었던 듯, 박지원 “열하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관역 타발에서 녹색나는 자기항아리를 보았는데 그 길이는 7아름, 둘레가 한되, 높이가 3~4치나 되었다. 그 위에는 파란유액을 칠하고 양뺨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입에다 큰 고리를 물고있는 듯한 鬚鬚 무늬가²⁵⁾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세수 대야로는 딱 알맞는데 육중하고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²⁶⁾

나무대야는 나무를 쪼개 속을 파내서 만든 것으로 넓이는 2~3치 정도이다. 이것은 가격이 싼데다가 가볍고 깨뜨릴 염려가 없어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몸에 해로운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뒤에 가서는 목욕보다는 빨래를 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林園十六志」에는 이 나무대야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무를 파서 틀을 만들고 생소가죽을 가마솥에 넣고 다린다. 생소 가죽이 아주 뜨거워졌을 때 먼저 만든 나무를 위에다 집어 넣고 가장자리는

22) 이규숙,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 살, p. 92.

23) 徐有榘, 林園十六志, 第二十二卷 贍用志, p. 539.

24) 徐有榘, 林園十六志, 第二十二卷 贍用志, p. 539.

25) 中國固有의 우의로 두 개의 눈을 主體로 하는 기이한 무늬이다.

26) 朴趾源, 熱河日記

들쭉날쭉한 곳을 깎아내어 정리한다. 금판에 약간의 주름이 잡히고 무늬가 돋힌 다음 틀 속에 넣어 마르기를 기다린다. 다 마른 뒤 구리로 된 틀 속에 집어 넣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칠을 하면 땅에다 돌려 매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진다.”²⁷⁾

유황대야는 나무, 진흙, 유기 따위로 만든 대야 속에 유황성분을 스며들게 한 것이다. 그 과정은 나무로 만든 경우 우선 나무의 속을 파 내어 타원형의 작은 대야를 만든 뒤, 표면에 칠을 한다. 이것을 구리로 된 틀 속에 넣어 굳힌다. 굳어진 대야 속에 녹인 유황물을 조금씩 부어 가면서 손으로 설새없이 저어 유황이 대야 속에 스며들도록 한다. 대야 속에 스며든 유황이 굳어지면 족쇄로 압박하여 매끈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만든 유황대야는 사용할 때마다 끓는 물을 부어 식힌 뒤 몸을 씻었다고 하니, 집안에서 硫黃泉에 목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林園十六志」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년동안 하체를 씻을 경우 “남자의 국부라든가 하초가 습한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상 살펴 본 각종 대야는 사용시 대개 밑바닥에 깔개를 깔았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부분욕을 할 때 밖이나 욕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방안에서 했으므로 대야에서 통겨나오는 물을 받아 내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풍속을 이루었던 대야깔개는 대개 쇠가죽에다 기름을 바르거나 칠을 한 뒤, 엷은 모시나 푸른 갈포를 깔아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미리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두꺼운 종이에다 기름을 입혀 대야깔개로 사용하게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조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발달된 대야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유교의 영향으로 전신목욕보다는 부분목욕이 풍속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곳곳에 약효가 뛰어난 온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황대야로 硫黃泉의 효과를 대신했다는 것은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한편 조선조에도 전신욕과 관련된 도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浴盆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욕분은 나무를 파서 커다란 대야같이 만든 것으로 「林園十六志」는 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안팎은 쇠가죽으로 싸서 칠을 했으며, 그 연변은 나무 판대기로 열두모를 내서 연꽃 난간을 만들고 거기다 푸른색과 붉은색의 흙을 기름에 타서 두껍게 발랐다.”²⁸⁾

그러나 당시 이 사회구조로 보나 목욕풍속으로 보나 이와 같은 욕분을 집안에 비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한정된 부류였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목욕에 사용되었던 도구로는 이 밖에 물을 데울 때 쓰였던 湯罐이란 것이 있었다.

형태는 주전자처럼 생겼는데 그 가운데 구리로 된 대롱이 꽂혀있어, 여기다 빨갭게 피어오른 솟덩이를 넣어 물을 끓이도록 되어 있었다. 탕관입구에는 나선형으로 된 구멍을 뚫고 여기에 또 다시 백통나사못을 만든 뒤 손잡이를 놓았다. 물이 끓으면 이곳에 대야를 갖다대고 손잡이를 틀어 관속에서 나오는 물을 쓸만큼만 받아내고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손잡이를 돌려 잠구었다고 한다.²⁹⁾ 이는 오늘날의 수도꼭지와 유사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과학성을 짐작할만 하다 하겠다. 탕관은 특히 장사할 때 시체를 목욕시키는데 사용하였다. 끝으로 목욕과 관련되었던 도구로 수건과 澡豆곽이 있었다. 수건은 몸을 닦기 위한 형질조각으로 대개 명주나 베를 이어 한자정도로 했으며, 양끝에는 띠를 만들어 달았다. 이렇게 만든 수건은 세수를 할 때 허리에 돌려 매는 것이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허리에 맨수건이 세수를 할 때 통겨나오는 물방울을 막아줌으로써 의복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건이란 명칭의 유래는 「고려사」에 따르면 忠肅王의 목욕 비용을

27) 徐有榘, 林園十六志, 第二十二卷 瞻用志, p. 540.

28) 徐有榘, 林園十六志, 第二十二卷 瞻用志, p. 540.

29) ‘탕관’의 構造는 「林園十六志」 第二十二卷, 參照.

苧布로 계산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은 돌아가셨다. 그런데 왕은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한달에 쓰이는 목욕 비용과 여러 향이 10여분이나 된다. 그것을 값으로 치면 苧布 60필 이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手巾이라 했다.”³⁰⁾

조두곽은 두 개의 커다란 대롱처럼 생긴 것으로 이에는 당시의 洗淨料였던 밀가루와 이를 닦는데 쓰였던 소금 가루를 담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개 두 개의 함대통을 구리로 된 틀 속에 집어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든 뒤, 기름을 바르고 칠을 한 것이다. 당시의 조두곽은 이처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國産외에도 유기로 만든 中國産이 많이 수입되어 주로 상류층에서 쓰였다. 중국산 조두곽은 盥가운데가 태극모양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어, 역시 한쪽에는 밀가루를 다른 한쪽에는 소금을 담도록 되어 있었다.

3) 목욕의 방법

조선시대의 목욕풍속은 부분욕과 전신욕으로 대별되는 바,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部分浴

앞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조에서는 옷을 벗는다는 것이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였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을 부분적으로 씻어내는 부분욕이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가옥구조 속에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궁 안에서조차도 세수간 나인이 왕이나 왕비의 목욕물을 일일이 바쳤다. 그 방법은 “漆甌에다 더운 물을 길어 붓고 작은 대야를 한데 받쳐 드리는 것”³¹⁾이었다. 이러한 궁 안의 풍속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班家에서도 그대로 행해졌음을 이규숙은 증언하고 있다.

“방이 이렇게 있으니 저 옷목에 장지 단구 거그다 큰 대야에다 시숫물 갖다 놓구 양춧기에다 양춧물 받아 놓구, 시숫물 떠냈지, 손숫물 또 따루 냐지, 발숫물 따루 냐지, 그때는 발 씻구 나시문 그거 내비리구 또 떠다놔야 해. 여자는 뉘물해야 허니켄 시수 한번 허시문 시숫물 다섯 번 떠야 해, 다섯 대야”³²⁾

그런면 이처럼 풍속을 이루었던 조선조의 부분욕은 어떤 형태로 구분되어 있었을까? 위의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대체로 닦 씻기, 손씻기, 발씻기, 뉘물, 이닦기 따위 였고, 이밖에 중요한 부분욕으로 머리감기가 있었다. 이중 닦 씻기는 잠자는 동안 분비된 각종 노폐물을 씻어 버리기 위해 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부분욕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첫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은 뒤 寢門 밖에 가서 시어머니의 안후를 살피는 것”³³⁾이 孝婦의 도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는 항상 이닦는 행위가 수반되어 당시의 하인들은 세수물 대야 가운데에 양춧물 그릇을 넣어 상전에게 바치게끔 되어 있었다. 이러한 풍속은 하인들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세수 대야 안의 물이 양춧물 속에 들어가 깨끗하지 못한 물로 입안을 씻어내게 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에 영조 때의 農政家 徐有榘는 “등그런 물받이를 만들어 세수대야 가운데 놓고 양춧물 그릇을 받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³⁴⁾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양치물 풍속도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일반화된 풍속인 만큼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와서는 완전히 위생상, 사교상 양치질을 하게 된 것으로 이때의 이닦는 재료는 주로 소금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말엽의 학자 이덕무는 자신의 이가 빠졌을 때 柳惠甫의 「病齒」

30) 高麗史, 卷三十五, 忠肅王 八年 三月條.

31)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淑大出版部, 1970, p. 282.

32) 이규숙, 이 ‘계몽마님’이 먹은 여든살, pp. 90~91.

3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七, 婦儀二人論 國譯 VI, p. 147.

34) 徐有榘, 林園十六志, p. 539.

란 시에 답하기를 “소금 찌꺼기를 膠鬲³⁵⁾에게 빌 필요도 없네”³⁶⁾라고 하였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 꼭 하는 부분욕으로는 세수와 이닦기 밖에도 뒷물이란 것이 있었다. 이것은 신체 중 下焦를 씻어 내는 것으로 한 방울 밀폐해 놓고 음팡 대야에다 물을 담아 씻는 것이 상례였다. 뒷물을 남, 녀 모두 하루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집갈 나이가 되면 하루에 2~3 번씩 하였다.”³⁷⁾고 한다.

조선시대의 부분욕 풍속은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루에 한번씩 꼭 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손씻기와 발씻기이다. 당시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풍속이었던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을 먹어야 했으므로 손의 청결이 위생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발을 자주 씻었던 것은 조선조의 복식 풍속상 항상 버선을 신게 되어 있었으므로 발가락 사이에 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발씻기는 조였던 버선목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다른 부분욕에 비해 몇배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음인지 “濯足놀이”라고 하여 여름철에 깨끗한 시내나 맑은 샘물을 찾아 다니며 발을 씻는 풍속이 일반에게 널리 행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탁족놀이 풍속은 조선 후기의 풍속도인 “탁족놀이(온양 민속 박물관 소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끝으로 풍요한 부분욕 중의 하나였던 머리감기는 대개 한 달에 한번씩 행해졌다. 이것은 적어도 일주일일에 두어번 정도는 머리를 감는 오늘날에 비하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당시는 長髮인데다 修髮이 까다로워 한번 머리를 감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으므로 자주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처마에 흐르는 빗물까지 받아 사용해야만 했던 당시로는 물의 소모량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달에 한번씩 머리를 감았음에도 조선시대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머리가 항상 정갈하게 보였던 것은 아침마다 머리를 빗기에 앞서 머리털에 기름을 바른 뒤 빗살이 촘촘한 참빗으로 비듬과 먼지를 훑어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의 머리는 주로 밤에 감는 것이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밤에 감아야만 아침에 상투를 틀거나 쪽을 지어 다른 사람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선조의 머리 감기는 부분욕이라는 일상적인 생활의 단면에 그치지 않고 俗信과 관련되어 명절 때의 관습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곧 端午날(음력 5월 5일)에는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부녀자들을 창포 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그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은 액을 물리친다는 俗信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流頭(음력 6월 15일)날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계곡이나 시내의 東流水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불길한 것을 씻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조에 풍속을 이루었던 부분욕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죄를 사면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幼兒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의 지혜로 발전하기도 했다. 前者의 경우는 「靑莊館全書」에 기록이 보이는 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곧 咸陽의 한 선비가 笞杖을 맞게 되었는데 官長이 유달리 깨끗한 그의 불기에 탄식하여, “불기가 저렇게 깨끗하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 선비로다.”하며 그의 죄를 면해 주었다는 것이다.

後者의 경우는 주로 유모가 없이 집안일을 돌보며 어린 아이를 키워야 했던 일반 부녀자들로 부터 생긴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여름철에 대, 여섯 가지의 옷을 허리에 칭칭 동여 매고 또 치마 허리로 가슴을 졸라 맨 채 일을 하다가 급히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경우, 젖이 너무 뜨거워 어린아기는 설사를 하기 마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의 서민 부녀들은 젖을 물리기에 앞서 젖가슴을 찬물에 씻어 식혔던 것이다.

4) 全身浴

조선시대에 풍속을 이루고 있었던 목욕은 앞서 말했듯이 부분욕이었고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全身浴이란 세상에 갓 태어 났을 때와 죽었을 때 뿐이었다.

35) '孟子盡心下'에 따르면 「교격」은 文王 때의 賢人으로 일찌기 바다에서 소금과 고기를 팔았다고 한다.

3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十, 雅亭遺稿二國譯 II, p. 232.

37) 朝鮮의 服裝, 朝鮮總督府發行, p. 114.

갓 태어 났을 때 하는 목욕은 일반에서는 맹물을 따듯하게 데워 胎內의 오물을 제거하는데 그쳤으나, 궁 안에서는 목욕물 속에 향약제를 집어 넣고 新生兒를 씻긴 뒤 誕生浴이라는 거창한 절차가 행해지기도 했다.

한편 죽은뒤의 목욕은 “근본으로 돌아간다”³⁸⁾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곧 네사람이 屍身을 덮고 있는 이불의 네귀를 맞들여 시신을 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밑에서 시신을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조선 조에는 늦봄 이후 여름철에 냇물에서 미역을 감는 풍속이 널리 유행하였다. 조선후기의 소설인 「興夫傳」에도 “큰놈, 작은놈 몸을 가리고 한 구석에 우물 우물하니 방문을 열어보면 마치 미역 감는 냇가 같이 아이 어른이 벗고들 사는 지라”⁴⁰⁾고 한 귀절이 있는가 하면, 「베비장전」에는기생 애랑의 목욕 장면이 꽤나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춘향전” 異本 가운데에도 춘향이 목욕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위의 내용이 시사하듯 이 최하류 층이나 특수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기녀들에게 限한 것이었지 양반들은 물론 중인계급에서조차도 거의 있을 수 없는 풍속이었다. 대신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허락한 연례행사로서의 목욕, 혹은 피로할 때나 미용을 위한 목욕 등 非禮를 합리화 시킨 전신욕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제 양반을 비롯한 중인 계급들 사이에 허용되어 있었던 당시의 전신 목욕 풍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례 목욕

연례 행사로서 행해지는 목욕의 시기는 음력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7월 15일 등이다. 이 시기는 계절상 늦 봄에서 늦 여름 까지이다.

목욕 시기가 이처럼 더운 계절로 설정된 것은 연례 행사로서의 목욕이란 집안이 아닌 냇가나 계곡에서 하는 전신욕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례 행사로서 행해지는 목욕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俗信 내지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곧 삼짇날의 목욕은 눈앞에 닥친 수난을 씻고 앞으로의 재앙을 막는다는 俗信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오날의 목욕 풍속은 아픈 식신, 피부병, 속병 따위에 효험이 있다고 믿은데서 더욱 풍속화 되었다. 또한 6월 보름날의 流頭浴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함으로써 더위를 쫓는다는 실제적인 의미와 함께, 不祥을 면할 수 있다는 俗信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특히 이 날의 목욕을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 한정된 것은 “東方이 靑이요 陽氣가 왕성한 곳”⁴¹⁾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칠월칠석날의 목욕은 이 때에 이르러 藥水가 여물어 부스럼을 방지하고 속병을 고친다는 俗信에서 비롯 되었으며,⁴²⁾ 백중날의 목욕은 7월 14일인 백중살이를 고비로 여름 물과 겨울 물이 바뀌어 지게 되는 때이므로 모든 병의 약이 된다는 풍속이다.⁴³⁾ 그런데 칠월칠석과 백중에 행해졌던 목욕은 적극적으로 행해졌던 풍속이 아니라, 칠석날의 목욕은 주로 三南지역(충청, 전라 경상)에서, 백중날의 목욕은 주로 제주에서 각각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음력 7월에 행해졌던 이 두 가지의 목욕 풍속은 유두날의 목욕 풍속과 더불어 물맞이라고 하여, 작은 목포수 밑이나 바다로 흘러 떨어지는 물 밑에서 물줄기를 몸에 맞음으로써 안마의 효과를 얻기도 했다.

결국 연례 행사로서의 목욕은, 극히 폐쇄적이었던 조선 왕조가 국민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전신욕을 합법화 시킨 것이라고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미용수단으로서의 목욕

미용수단으로서의 목욕은 대개 궁중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계급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서민과는 다소 거리가 먼 풍속이었다. 이 목욕 풍속의 목적은 피부를 희고 윤택하게 만들 때 손, 발이 트는 것을 방지

38) _____, 家禮集考 卷三,
“人死必沐浴於中霑示溪淨反本也.”

39) _____, 家禮集考 卷三, 參照.

40) 興夫傳, 豫洛範 校註, 合同出狀社, 1964, p. 10.

41) 李承萬, 風流歲時記, 中央選書 1, 中央日報東洋放送, 1977, p. 86.

4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篇, 韓國民俗大觀四, p. 246.

43) 秦聖麒, 南國의 民俗, p. 250.

하는데 있었다. 그 방법은 대개 식물의 잎이나 열매 또는 뿌리를 달여 목욕물에 섞어 목욕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美容湯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인삼과 인삼잎을 달여 넣은 인삼탕으로 여기에 목욕하면 피부가 매끈하고 윤기가 흘렀다고 한다. 다음으로 효과적이었던 것은, 껍질 벗긴 찢 마늘을 목면 주머니에 담아 목욕물에 넣고 초를 약간 탄 마늘탕이었다. 이것은 피부를 윤기있게 한다는 미용효과 밖에 여드름을 치료하고 동상을 예방한다는 의료 효과를 겸하고 있었다.⁴⁴⁾ 또는 계절 따라 등장하는 식물이 효과적인 미용탕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니, 늦 봄의 창포탕, 여름철의 복숭아탕, 겨울철의 유자탕 등은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밖에 계절을 초월하여 보편화 되었던 효과적인 미용탕으로 蘭湯이 있었다. 이것은 목욕물에 난초를 달여 넣은 것으로 특히 몸에서 은은한 향내를 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세정료였던 澡豆의 날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자주 蘭湯에 목욕을 하는 것이 풍속처럼 되어 있었다.

③ 치료 수단으로서의 목욕

조선초에 치료수단으로 가장 많이 행해졌던 목욕은 온천욕이었다. 이 온천욕은 일찌기 고려에서 그랬듯이, 조선조에서도 역대 왕들에게 매우 인기여서 太祖, 定宗, 太宗 등은 황해도 평산군에 있는 평산 온천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조선조의 역대왕들이 여러 온천 중에서 특히 평산 온천을 자주 찾은 것은 이곳이 목욕에 적합한 單純泉일 뿐만 아니라 만성 류머티즘, 신경통, 신경염 따위에 특히 효험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의 왕들은 천안에 있는 온양 온천에도 자주 거동하였던 듯,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는 “질병치료에 효험이 있어 태조, 세종, 세조가 일지기 이곳에 거동하여 머무르면서 목욕 하였는데,⁴⁵⁾

유숙한 御室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왕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귀족층에게 애호를 받던 온천은, 차차 조선 각지에서 온천이 개발됨으로써 이용자의 층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천은 당시 문인들의 詩素材로 자주 등장 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보면, 온양 온천을 두고 이숙함은 “火龍이 깊이 땅 밑에 굴을 파서 샘길을 열어 놓아 맑은 물 솟아나니, 따뜻한 물 신령한 진액이 사람의 질병을 쾌히 다스려 해묵은 難治의 병이 저절로 떠난단다.⁴⁶⁾...”고 노래했고, 任元濬은, “따뜻하기가 끓인 물 같고 맑기도 한없으니, 불덩이 땅 속에 묻혀 때로 물이 솟아나네, 痼疾 낮게 하여 만 백성을 구제할 뿐 아니라 능히 번뇌도 씻어 버려 聖體도 조호하니⁴⁷⁾...”라고 노래 했다. 또한 朴孝修는 “골자기 깊숙한 곳 돌못[石塘]이 펼쳐 있어, 맑게 흔들리는 물 가득히 괴어있네. 허리에 닿을 정도로, 겨우 2자의 깊이지만 따스한 연기 같고 안개 같은 것 그 주위에 김 오른다.⁴⁸⁾...”고 동래 온천의 풍경을 노래 했다.

치료를 위한 정신욕에는 온천욕 외에도 한증욕이란 것이 있었다. 한증욕이란 흙이나 바위로 된 굴에 다 불을 때 달군 뒤, 물을 축인 명석이나 가마니를 그 속에 넣고 나체로 들어가 눕거나 앉아 땀을 내는 것이었다. 이 한증욕 풍속은 당시 각 지방에서 행해졌는데, 방법은 거의 동일했으나 약효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약효를 내는 것이, 바위나 흙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인데, 지방에 따라 성분의 종류라든가 양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증욕 풍속은 조선조 중엽에 이르러 각 지방에서 자생하는 산야초(참비싸늘, 감나무순, 밤나무순 따위)를 찜통에 찌서 그 수증기를 쬐는 藥水 찜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약수 찜의 약효는 각 식물에서 우러나는 특수한 성분 때문이었다 한다.

한편 조선시대의 전신욕은 당시 목욕보다 중히 여겼던 여성의 정조를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것은 병자호란 때(1637) 瀋陽으로 끌려가

44) 全完吉, 沒 5000年, p. 222.

45) 新增東國輿地勝覽, 第十九卷, 溫陽郡 國譯 Ⅲ, p. 137.

46) 新增東國輿地勝覽, 第十九卷, 溫陽郡 國譯 Ⅲ, p. 140.

47) 新增東國輿地勝覽, 第十九卷, 溫陽郡 國譯 Ⅲ, p. 140.

48)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二十三卷, 東來篇 國譯 Ⅲ, p. 352.

오랑캐에게 정조를 더럽히고 돌아온 부녀자들을 홍제원에서 목욕하게 함으로써 그 죄를 면해준 사실이다. 이것은 물을 신성시하는 고대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일신라 때 益宣阿干的 죄를 목욕으로 다스렸던 사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5) 목욕의 예의

조선조에서 청결은 가장 중요한 예의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헝크러진 머리, 때진 얼굴에 옷과 허리 띠를 아무렇게나 몸에 걸친 아이를 두고 “검소한 것이 아니라 누추한데 가까우니 결코 어진 사람이 될 수 없다.”⁴⁹⁾고 보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청결하게 키울 것을 종용했다. 이에 당시의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난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대소변가리기를 훈련시켰고, 이에 세수, 이닦기, 발씻기, 손씻기 따위의 부분욕 훈련을 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청결 훈련은 단지 씻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씻을 때의 예의가 함께 교육되었다. 이제 「청장관 전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행해졌던 부분욕의 예의 풍속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세수할 때의 예의를 보면 그 첫째가 입과 코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세수할 때 가장자리에 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며, 벽에 물을 뿌리거나, 너무 더디게 하는 것 등도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였다.⁵⁰⁾ 특히 祭祀에 참여할 때에 세수를 더디게 하여 남에게 뒤지는 것을 크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간주 하였다.⁵¹⁾

한편 손과 발을 씻을 때의 예의는, 손을 씻고 나서 물방울을 창문이나 벽에 튕기지 말아야 했고,⁵²⁾ 발을 씻을 때는 시중 드는 하인이 아무리 비천해도 발을 문지르게 해서는 안되었다.⁵³⁾ 그밖에 남의 집에서 부분욕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예의가 매우 엄격했다. 그것은 대개 세수와 관련된 것으로, 주인이 세수하기를 권하면 지체없이 일어나 나가고, 만일 하인이 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網巾을 써버리는 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였다. 또한 세수를 한 뒤 함부로 주인의 수건에 닦는 것이 非禮로 간주 되었다. 그 까닭은 “수건을 더럽혀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성질이 다르니, 혹 주인이 깔끔한 성격이어서 남의 때를 싫어할까 싫어서”⁵⁴⁾였다. 그러나 주인이 수건을 내줄 경우에는 거기다 닦되, 콧물이나 침을 묻히지 말고 수건 끝으로 살짝 닦는 것이 당시의 예의 풍속이기도 했다.

全身浴에 관한 예의는 무엇보다도 의관을 함부로 벗지 않는 일이었다. 이 예절은 당시 대단히 준엄하여 유두날이나 백중날 물맞이를 할 때도 부녀자들은 대개 얇은 속적삼과 속치마를 입은 채 물을 맞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었다. 또한 발을 씻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신욕을 할 때도 하인에게 때를 밀게 하는 것은 非禮 행위로 간주 되었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목욕 풍속을 목욕 도구, 목욕 방법, 목욕예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이 사용하였던 목욕도구를 통해 유난히 다양하면서도 발달된 대야 풍속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목욕 풍속이 부분욕 중심이었다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목욕 풍속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엄격한 유교의 영향으로 부분욕이 목욕 풍속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지, 탄생직후와 죽은 직후가 아니더라도 전신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것은 국가가 권장한 연례 행사로서의 목욕, 치료수단으로서의 목욕, 미용수단으로서의 목욕 등이다. 극히 폐쇄적이었던 조선 사회에서 이처럼 여러가지 의미를 붙여 전신욕을 합리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사치한 복식 문화의 영향으로 보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49)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一, 士小節, 第八, 童規三, 動止, 國譯篇, p. 153.

5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一, 士小節, 第二, 士典, 動止, 國譯篇, p. 31.

5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二, 士典, 謹慎, 國譯篇, p. 43.

5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動止, 國譯篇, p. 132.

5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五, 士典五, 事物, 國譯篇, p. 100.

5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一, 士小節, 第二, 士典二, 動止, 國譯篇, p. 37.